



주일낮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1부 09:30
2부 11:30

* 전주 | 반주자
* 예배의 부름 | 시편34:1 | 인도자

* 개회송 | 찬양대

* 예배기도 | 인도자

* 찬송 | 2장 | 다함께

* 성시교독 | 91(성찬 1) | 다함께

* 사도신경 | 다함께

영광송 | 534장 | 다함께

증보기도 | 1부 : 장증규B 집사
2부 : 김경일 장로

응답송 | 찬양대

오늘의 말씀 | 마가복음14:10~26 (산약p. 79) | 인도자

찬양 | 1부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오카리나
2부 : 이 세상의 모든 죄를 | 할렐루야 찬양대

설교 | 나의 객실 | 박장덕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성찬식 | 박장덕 목사

여호와의 유월절

찬송 | 예배합니다 | 다함께
보혈을 지나

* 봉헌 및 찬송 | 주님 감사해요 | 다함께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찬양 | 송축해 내 영혼, 부르신 곳에서 | 다함께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후주 | 찬양대

◎ 다음주 기도 : I 부 : 정재섭 집사 II 부 : 박영복 장로



찬양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친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 150:6)

인도 : 1부 홍순진 목사
2부 배장열 목사

15:00

인도 : 이종백 목사

찬양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기도 | 이향옥 권사

교회소식 | 인도자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12:12~27 | 인도자

특별찬양 | 에메트 찬양단

설교 | 행복은 전염된다 | 박영호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양 | 다함께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다음주 : 청년부 헌신 예배

수요기도회

19:30

인도 : 박장덕 목사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기도 | 장보람 집사

찬양 | 제2부 남선교회

교회소식 | 인도자

성경봉독 | 마가복음13:3~22 | 인도자

설교 | 멸망의 징조 | 박장덕 목사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 박순옥 집사

찬양 : 제3부 남선교회

가정예배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찬송 | 455장 | 497장 | 505장 | 475장 | 207장 | 320장 |
| 말씀 | 롬15:1-13 | 롬15:14-21 | 롬15:22-33 | 롬16:1-16 | 롬16:17-27 | 딛1:1-9 |



지난 주일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본문 : 역대하20:26

제목 : 인생의 반은...나마지도...

1988년 서울 올림픽 라이트미들급 결승전에 한국 박시현 선수, 미국 로이 존스 선수가 대결했어요. 박시현 선수가 수세에 몰린 경기였어요 시청하던 국민들이 다 졌다. 박시현 선수도 진 것으로 여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판이 3:2로 박시현 선수가 이겼다고 금메달을 만들었어요. 다 편파판정이라고 했어요. 동독 심판이 미국이 2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박시현에게 유리한 판정을 했다는 설도 있었으나, 훗날 1997년 올림픽 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심판판수는 없었다. 정당한 판정이었다. 심판이 보는 것과 일반인이 보는 것은 다르다. 정당한 판정이었다고 했어요. 박시현 선수, 본인 생각, 경기력, 실력과는 전혀 다른, 다른 힘, 심판에 의해 되어졌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행운권 추첨, 경품 추첨하면 당첨 안 되는 사람은 안되죠, 그런데 되는 사람은 잘 됩니다. 당첨 잘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당첨은 되어지는 일입니다. 낚싯바늘이 미끼를 기워 바다 밀으로 내리면, 어느 미끼를 물겠습니까? 이건 고기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낚싯바늘에 끼 미끼를 물어줘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그 나마지도 나의 것이 아니죠 내 인생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어요.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결탁해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침략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기도해요. 백성들이 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하시엘에 임합니다. 아하시엘이,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도 마음 쓸 일이 없다. 이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가만히 서서 지켜보거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우리의 목숨도 굳건할 것이다.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승리한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만들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친양합니다. 찬양을 시작하자,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적들이 서로 싸웁니다. 여호사밧의 생각, 기대, 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중지란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하여 그 전투현장을 기준 한꺼번에 다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전리품, 귀중한 보물을 얻게 돼요. 여호사밧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친양한 일뿐이었는데,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옵니다. 우물을 팬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자, 단물, 좋은 물이 나와요. 이삭의 힘과는 전혀 별개로 단물이 주어집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결실을 가져와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괴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더라도 헛되고 맙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빠른 자라고 해서 일찍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기대, 힘, 내 지혜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기릇 유다와 베드로, 출발은 같습니다. 사울과 유다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만들었고, 다윗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씨를 뿌립니다라는, 어느 씨앗에서 씨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감사하며 친양할 뿐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